

지역 체육의 발자취 보존·관리시설 전무

# 전북 체육 역사 기념관 건립 시동

도체육회, 1차 추진위 개최  
기념관 건립 지역·부지 확보  
체육 유물 수집 등 방안 논의

전북 체육계의 숙원인 '전북 체육 역사 기념관' 건립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북체육회는 25일 전북 체육 역사 기념관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육 역사 기념관은 전북체육회의 역점 사업으로 잊혀지기 쉬운 전북 체육 역사·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함이다. 전북 체육의 경우 신준섭(복싱)과 유인택(레슬링), 김동문(배드민턴), 전병관(역도), 박성현(양궁), 임미경(핸드볼), 김아람(빙상) 등 다수의 스포츠 스타를 배출했고,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FIFA U-20 월드컵 전국체육대회(5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럼에도 전북체육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보존관리하는 시설은 없다.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그간 추진찰차를 보고 받은 뒤 ▲기념관 건립 지역 및 부지 확보 ▲예산 확보 ▲체육유물 수집 등의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북체육회는 25일 전북 체육 역사 기념관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 체육 역사 기념관은 전북체육회의 역점 사업으로, 잊혀지기 쉬운 전북 체육 역사·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함이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추진위원들은 이병도(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성경찬(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김정철(도청 체육진흥팀장)·송영진(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함한희(무형문화연구원장)·천호준(우석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홍성덕(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이상윤(JTV방송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제1차 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도 체육회는 공연장파 수장고, 전시실, 체험실 등을 갖춘 역사 기념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에 참여했던 천호준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지와 예산 확보 노력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조나 내용물을 생각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쓸모가 없어지는 만큼 기념관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와 전북 체육사와 유물조사 등 사전 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25일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은 도쿄올림픽 여자복식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공희용(전북은행, 사진 왼쪽)과,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권영준(익산시청)에게 포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전북 빛낸 도쿄올림픽 영웅들에게'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배드민턴 공희용·펜싱 권영준에 포상금 전달

2020 도쿄올림픽에서 전북을 빛낸 스포츠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5일 정강선 회장은 도쿄올림픽 여자복식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공희용(전북은행)과,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권영준(익산시청)선수에게 포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세계랭킹 5위인 공희용-김소영(인천국제공항)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랭킹 4위인 이소희-신승찬(인천국제공항)에게 2대 0으로 승리했다. 권영준은 박상영, 송재호, 마세건과 출전한 남자 에페 단체 동메달 결정전에서 접전 끝에 중국을 누르고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강선 회장은 "선수들의 활약은 도민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다"며 "내년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3년 뒤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박지성이 말하는 K리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 박지성이 전하는 K리그 이야기

K리그 매거진 프로그램 '다이너믹 피치'

박지성 프로축구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위원)가 K리그 매거진 프로그램 '다이너믹 피치'에 출연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K리그 전문 스포츠 채널인 스키이스포츠에서 방영하는 다이너믹 피치 7회에 박 위원이 나온다고 25일 밝혔다. 올 시즌 전북 행정자로 K리그와 첫 인연을 맺은 박 위원은 화제의 K리그 인물을 소개하는 코너 '궁금한'에 출연해 K리그와 전북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또 K리그 유튜브에서 박 위원의 친필 사인볼이 걸린 분방시수 이벤트도 진행되는다. 방송에서 박 위원이 유럽에서 통할 것이라고 지목한 선수를 맞춰야 한다. 박종윤 캐스터, 박문성 조원희 해설위원, 이정현 장현정 아나운서가 고정 출연하는 다이너믹 피치는 지난달 15일 첫 회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축구 팬들을 찾고 있다. /뉴시스